

브랜드 및 상품 개발 통해 경쟁력 확보

이복영 / 이엔디자인그룹 대표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매년 우수 패키지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패키지 디자이너들에 대한 긍지와 위상을 높이고, 우수 디자이너를 육성하여 패키지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6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 일반부문에서 이엔디자인그룹의 이복영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협회 및 한용교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한 이복영 대표는 “너무 큰 상을 받은 것 같아 한편으론 협회 회원분들께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마음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에서 브랜드패키지디자인학을 전공한 이복영 대표는 1989년 서울디자인센터근무를 시작으로 (주)디엔시 부국장을 거쳐 현재 이엔디자인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제34, 35, 36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특선 3회 수상,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팩스타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산업디자



인전람회, GD마크 심사위원으로 위촉,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2000년 한국포장디자인학회에 ‘합리적인 포장디자인을 위한 컨셉설정 프로세스 제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 그동안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작품전, 패키지디자인실험작가전, (사)한국미술가협회 회원전 등 실전

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인정받아, 업계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복영 대표는 패키지디자인의 프로세스에 있어, 무엇보다도 컨셉을 추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품을 받아서 디자인을 기획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컨셉의 방향을 설정하고 스케치하는 과정을 실천하는 디자이너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과거 수작업에서 컴작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소홀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디자인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 6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에서 이권식 회장과 한용교 회장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패키지디자인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경쟁프레젠테이션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쉽다는 이 대표. 그는 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많은 대화와 노력을 통해, 전문회사도 '내 것', '내 자식'이라는 사명감으로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풍토가 업계에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상호간 기술력, 정보 등 보다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포장관련 단체 및 전문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때 업계가 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

력했다.

“패키지디자인 회사가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복영 대표. 그는 “자기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미래에서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파악, 그는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디자인하고 제작해 판매할 목적으로 기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복영 대표.

“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패키지를 사랑하고 지혜를 모아 업계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박초혜 기자